

# 기획 연재(1) 최지평 교수의 ‘손에 잡히는 국어’

2003. 6. 1 시행

최 지 평 교수

경북지방직 국어

· 종로 이그잼 고시학원  
· 마산 중앙 고시학원

1. 출제 유형 분석

영역	하위 단원	출제 유형	문항
언어표현	문법적 지식	① 언어의 사회성 ② 용가 67장 ③ 글자의 음가(엄쏘리)	7
	규범적 지식	① 장음(애정) ② 어법에 맞는 문장 ③ 한자의 속음(활음조) ④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언어사양	언어 영역	① 수사법(역설) ② 논증의 오류 ③ 단어의 의미 관계 ④ 역명제	6
	실용문 독해	① 북한의 말과 글(동상이몽) ② 기미 독립 선언서(중심내용)	
문학	문학 일반	① 비평(반영론)	7
	작품의 이해 감상	① 신록예찬(문맥적 의미) ② 시조 ③ 동동(시적 화자 처지) ④ 봉산탈춤(언어 유희) ⑤ 공감각적 이미지	
	국문학사	① 처용가	
한자·한문	타 단원 복합 문제		0

## 2. 실제 문제

---

★ 복원 가능한 문제를 엄선했습니다.

1. 신라 향가이면서 고려속요로서 주술적 성격인 것은?

- ① 풍요
- ② 서동요
- ③ 처용가
- ④ 찬기파랑가

· 출제 유형 : 국문학 지식

· 해결 과정 : 「처용가」는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물리치기 위한 축사의 노래이다. 8구체 향가로 6행의 고려속요로도 전한다. 향찰 해독의 단서가 된 작품이다.

〈정답〉 ③

2.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면?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 ②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 ③ 그 거만한 사장의 외삼촌은 그 동안 쌓아 놓은 공덕을 죄다 깎아 내리고 있다.
- ④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 출제 유형 : 어법 - 올바른 문장 고르기

· 해결 과정 : ②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③ 모호한 문장(그 거만한 시장, 그 거만한 외삼촌), 선표 사용 필요.  
④ 이 배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서)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정답〉 ①

3. 다음 단어에서 장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 ① 고속(高速)
- ② 비리(非理)
- ③ 애정(愛情)
- ④ 파행(跛行)

· 출제 유형 : 표준 발음법(음의 길이)

· 해결 과정 : ①, ②, ④는 단음, ③은 장음이다.

〈정답〉 ③

4. 다음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次(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여 次(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여 次(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인류) 共存同生權(공존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억제)치 못할지니라.

- ① 독립의 정당성
- ② 독립 선언의 내용
- ③ 독립 선언의 취지
- ④ 독립 선언의 배경

- 출제 유형 : 핵심 내용 파악(사실적 사고 능력)
- 해결 과정 : 윗글은 독립 선언의 배경(전제)과 그 정당성과 신념(주지)을 주장한 글이다. 인과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5. 다음 작품에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가 아닌 것은?

四月 아나 니저 아으 오실셔 곶고리새여  
 으슴다 緣事니문 빛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룬 빚다호라  
 도라 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다니실 혼부니 업스샷다  
 아으 동동다리

十二月스 분디 남ᄃ 갖곤 아으 나을 盤저다호라  
 니의 알■드러 열이노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 ① 곳고리새
- ② 빗
- ③ 버릇
- ④ 저

- 출제 유형 : 소재의 함축적 의미
- 해결 과정 : 「동동(動動)」은 입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을 노래한 최초의 율령체 시가로 전 13연의 고려 속요이다. 사월령의 ‘곳고리새’는 계절을 알려 주는 매개로 서정적 자아를 찾지 않는 녹사 입과 대조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②, ③, ④는 입에게 버림 받은 서정적 자아의 가련한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들이다.

<정답> ①

6.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ㄱ는 ( )니 君군ㄷ字종 처섬 피아나는 소리 ㄱㅌ니  
 ·ㅋ는 ( )니 快쾌ㅇ字종 처섬 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ㅇ는 ( )니 業業字종 처섬 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 ① 엄쏘리
- ② 입시울쏘리
- ③ 목소리
- ④ 니쏘리

- 출제 유형 : 15C 초성의 이해
- 해결 과정 : 훈민정음 초성과 그 소리값[음가]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초성 17자를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엄쏘리는 어금닛소리로 아음(牙音)이다.

<정답> ①

조음 위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엄쏘리 [牙音]	ㄱ	ㅋ	ㅇ
혀쏘리 [舌音]	ㄴ	ㄷ, ㅌ	ㄹ
입시울쏘리 [脣音]	ㅁ	ㅂ, ㅍ	
니쏘리 [齒音]	ㅅ	ㅈ, ㅊ	ㅌ
목소리 [喉音]	ㅇ	ㅎ, ㅎ	

7. 다음 ( )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이 같은 어휘의 차이는 현재 남북 대화를 할 경우에는 물론,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상호간의 의사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경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각각 다른 뜻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원만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 )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동상이몽
- ② 오리무중
- ③ 동병상련
- ④ 건강부회

- 출제 유형 :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
- 해결 과정 : ①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의미.

<정답> ①

8.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잘못 적용된 것은?

<본음>

<속음>

- |          |                       |
|----------|-----------------------|
| ① 승낙(承諾) |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
| ② 만난(萬難) | 곤란(困難) 논란(論難)         |
| ③ 안녕(安寧) | 의령(宜寧) 회령(會寧)         |
| ④ 분노(忿怒) | 생로병사(生老病死) 희노애락(喜怒哀樂) |

- 출제 유형 : 한자어의 우리말 속음(한글 맞춤법 52항)
- 해결 과정 : 속음(俗音)은 한자어에서 본음과는 달리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통용음, 관용음이다. 한글 맞춤법 52항에서 활음조(euphony)와 관련된 예들이다. ④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로(老)'는 속음이 아니라 본음으로 발음된 예이다.

<정답> ④

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③ 된소리 발음을 인정한다.
- ④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쓴다.

- 출제 유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규범적 지식)
- 해결 과정 : ③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인정하지 않는다.

(예) 압구정[압꾸정] → Apgujeong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셋별[셋뻬] → saetbyeol

〈질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11)

말뚝이 : (가운데쯤 와서) 쉬어. (음악과 춤이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오, ㉡개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3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10. 밑줄 친 ㉠과 같은 의미 관계는?

- ① 빨강다 - 파랗다
- ② 남자 - 여자
- ③ 죽다 - 살다
- ④ 있다 - 없다

- 문제 유형 : 단어의 의미 관계

- 해결 과정 : 의미가 서로 반대되거나 또는 짝을 이루어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 한다. 이러한 반의어는 둘 이상의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한 개의 요소가 달라야 한다. 반의 및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 쌍을 일컫는 용어들은 그 관점과 유형에 따라 반의어, 상대어, 대조어, 대립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반의어는 한 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 하나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관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하늘 : 땅 : 바다’, ‘과거 : 미래 : 현재’처럼 삼원 대립을 보이는 경우라든지, ‘연하다 : ①질기다 ②딱딱하다 ③강하다’처럼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선지②, ③, ④는 한 쌍으로 존재하는 반의 관계인 반면 ①은 ‘빨강다 : 파랗다, 노랗다, 까맣다, 하얗다...’등의 다원 대립을 보이는 반의 관계이다. ㉠ 역시 ‘호조, 병조, 이조, 예조, 형조, 공조’ 등의 다원 대립의 반의 관계이다.

11. ㉠의 표현 수법과 같은 것은?

- ① 모 떨어진 개상반, 굶어 먹은 갈비 한 대, 건져 먹던 콩나물국, 병든 대추, 목, 전, 포, 뽕뽕한 막걸리 한 잔을 “어서 먹고 속거천리(速去千里) 헛쉐!”
- ② 간 밤 꿈에 박작을 쓰고 배락을 맞아 보이더니, 벨놈의 꼴을 다 보겠네.
- ③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왔다.
- ④ 진국명산 만장봉이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며, 칭암 절벽 식상돌이 눈비 온다고 쓰러질까.

· 문제 유형 : 글의 표현 기법(언어 유희)  
 · 해결 과정 : 언어 유희(言語遊戱)는 풍자나 해학을 목적으로 언어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그 대표적 용례를 살펴 보자.

- (1) 음절 도치  
 예) 치정 같은 정치가 병인 양하여(「하여지향」 송옥)
- (2) 끝말 맞추기  
 예) 아주뽀인지 도마뽀인지(「홍보가」)
- (3) 동음 이의어  
 예) 그분이 갈비를 달래면 익은 소갈비를 달래지, 사람의 생각비를 달래단 말이오? (「춘향가」)
- (4) 음의 유사성  
 예)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예다 축축 축여 났습니다.

선지의 ①은 열거, ②는 풍유, ④는 은유, 대조, 설의 등의 표현 기교가 쓰였다. ③은 끝말을 맞춘 언어 유희 기법이 쓰이고 있다.

12.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이 울던 곳’ 과 표현 기법이 다른 것은?

- ① 푸른 옷음,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등기둥 줄이 울면 초거 삼간 달이 뜨고
- ④ 분수처럼 흘러 지는 푸른 종소리

· 문제 유형 : 공감각적 이미지  
 · 해결 과정 : 한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image)이 긴밀하게 어우러져 감각이 전이된 표현을 공감각적 이미지라 한다.

③은 청각과 시각이 단순하게 연결된 표현으로 복합 감각이라 한다. 각각 나누면 단일 감각적 이미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13. 다음 작품에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통하는 악장 문학은?

ㄹ ㄹ 새 자거늘 미쁘리 사으리로되 나거사 즈므니이다.  
섬 안해 자실 제 한비 사으리로되 뷘어사 즈므니이다.

- ① 월인천강지곡
- ② 정동방곡
- ③ 감군은
- ④ 궁수분곡

· 문제 유형 : 국문학사 지식

· 해결 과정 : 용비어천가 67장은 천우신조(天佑神助)를 주제로 전절은 원나라 승상인 백안의 고사를, 후절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고려 왕조의 권위에 정면으로 저항한(반역행위) 역사적 사건인데, 왕조의 명령을 거역한 그 사건과 중국의 사적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①은 세종 29년 세종 대왕이 석보 상절을 보고 감명을 받아 창작한 서사시로 석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②는 태조 2년 정도전이 태조의 위화도 회군을 찬양한 내용을 담은 한시체 악장 문학, ③은 명종 3년에 상진이 지은 속요체 악장, ④는 왜구를 물리친 태조의 무공을 칭송한 정도전의 악장 문학이다.

〈질 답〉 ②

14. 밑줄 친 어휘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은?

그리고 또, 사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 ① 허락을 받아 내다.
- ② 세금을 내다.
- ③ 시간을 내서 만나다.
- ④ 속력을 내다.

· 문제 유형 : 어휘의 문맥적 의미 -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분

· 해결 과정 : 단어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련되어 갖게 되는 의미를 문맥적 의미라 한다. 이 문제는 문법적 지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쉽다. 다시 말해서 ①은 동사의 활용 어미 ‘-어, -아’ 다음에 쓰여, 그 동작을 제 힘으로 능히 끝냄을 보이는 보조 용언이다. ②, ③, ④는 모두 타동사로 쓰인 예이다. ②는 ‘지급하거나 바치다’의 뜻, ③은 틈을 만들다, ④ 새로 더하다는 의미를 각각 지닌 타동사로 쓰였다.

〈질 답〉 ①

### 3. 집중 탐구 학습 - 「동동(動動)」

이번 경북 지방직 국어 문제는 문법(7), 언어 사용 영역(6), 문학(7) 등의 영역별 분포에서 대체로 고른 편이다. 국가직에 다소 출제 빈도가 낮아진 문학 영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동동」(5번)을 집중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고전 시가에 대한 문제 유형과 학습 초점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Ⅰ 고전 시가 탐구

##### (1) 기출 문제 주요 유형

고전 시가에서 기출된 문제 가운데 핵심은 작품의 감상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제에 대한 파악이라 할 수 있다.

#### ① 유형의 개념 - 작품 감상에 관한 문제

##### <주제에 관련된 정보>

- ① 중심 소재 : 주제 형성에 중심 소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판단
- ② 서술 방식 : 주제 표현에 서술 방식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판단
- ③ 작품의 어조 : 주제에 대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지를 판단
- ④ 가치관 : 어떤 가치관에서 주제가 나왔는지를 판단
  - ㉠ 유교적 가치관(효를 중시한다. 예절을 중시한다. 인간다움을 강조한다.)
  - ㉡ 불교적 가치관(인간의 삶이 지닌 문제를 탐구한다.)
  - ㉢ 사대주의(중화사상(中華思想)에 입각한)적 발상
  - ㉣ 실용적인 학문(실학)의 태도

##### <올바른 주제 응용의 방법>

- ① 작가가 작품을 어찌하여 창작하게 되었는가?
- ② 작품을 읽고 독자는 어떤 반응을 얻게 되는가?
- ③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 ④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 <문제의 예>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려고 한다.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작품 속 화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에 대한 감상의 태도로 잘못된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중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고른다면?

② 문제 해결 방식

㉠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는다.



㉡ 주제를 둘러싼 특징적인 정보(중심 소재, 어조, 가치관)를 찾아낸다.



㉢ 작품 속 특징 있는 정보(중심 소재, 어조, 가치관)의 쓰임새를 확인한다.



㉣ 작품의 내용(주제)을 응용한다.

<문제 해결의 예>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기 뉘 싸혜 낫드니.

- 중심 소재 : 이제(백이, 숙제의 고사) → 멸망한 왕조에 대한 절개
- 어조 : 아모리 푸새엿거신들 기 뉘 싸회 낫드니  
 → 비판적 어조 → 시적 화자는 더욱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임
- 주제 응용 : 당시 사회와 관련 → 사회가 작가에 미친 영향 추론

(2) 갈래별(작품별) 학습의 초점

갈래 명칭	갈래별 특징	
향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뇌가(10구체 형식)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상 : 송고미(↔골계미)를 강조</li> <li>- 형식상 : 마지막 줄 첫 구의 정형성을 띤 어구에 주의(아아, 아으 등)</li> </ul> </li> <li>* 차자 표기법(한자의 음을 빌린 표기법)으로 기록됨</li> </ul>	
고려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음구(후렴구, 반복되는 뜻을 모를 소리)의 쓰임새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일관성을 부여한다.</li> <li>-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한다.</li> </ul> </li> <li>* 주제 의식이 다양함(세속적인 사랑 노래(연정가)가 탄생함.)</li> </ul>	
두시언해	표기의 이해	두시 언해는 단순히 시가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사료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고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에 대한 관점 파악	시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상에 대한 관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절구’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심과 향수가 시대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작가의 현실 인식과 가치관	작가의 가치관과 현실 인식이 이백의 시와는 또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용비어천가	창작 동기	새로 세운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창작된 노래이다.
	주제 파악	대부분의 노래는 왕의 능력에 대한 예찬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125장은 후대왕에 대한 권계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작품의 기능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송덕을 기리는 예찬적 성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실용성에 대한 확인과 일반 민중들에게 조선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기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유산가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는 매우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유희적인 태도로 노래하고 있다.
	표현상 특징	양반 문학을 흉내었다는 점과 우리말의 유려한 사용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는 표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대상에 대한 관점	양반 문학의 일반적 특징과 구별되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
연행가	내용의 이해	기행 가사이므로 여정에 따라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필자의 태도에 유념한다.
	서술상 특징	대상에 대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묘사나 다양한 시선을 가지는 점 등을 잘 파악해 두도록 한다.
	표현상 특징	산문적 내용의 운문적 표현이라는 점에 유의 한다.

판소리/ 서사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소리의 3대 요소 : 아니리(이야기), 발림(몸짓), 창(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의 사용에 주의 :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도움</li> <li>- 구비 전승이 일반적(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li> </ul> </li> <li>* 서사 무가의 짜임 : 이야기 형식, 노래 형식이 동시에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사적 구조(사건의 전개)에 주의</li> <li>- 종교적 목적(샤머니즘)의 의식 노래</li> <li>- 구비 전승이 일반적(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li> </ul> </li> </ul>
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요 : 가장 일반적인 구비 문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시가의 전통적 율격이 잘 드러난다</li> <li>- 구비 전승이 일반적</li> </ul> </li> </ul>

② 「동동(動動)」 탐구

(1) 작품 이해

- 갈래 : 고려 속요
- 형식 : 전 13년의 월령체(달거리 형식)
- 주제 : 임에 대한 송도(松濤)와 연모의 정
- 국문학적 의의 : ①월령체가의 효시  
②민속 연구의 소중한 자료
- 출전 : 『악학궤범』

(2) 작품 감상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나곤 몸하 흥올로 널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晩春 ㉡들윗고지여.  
늑뭇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綠事(녹사) 니몬 넷 나를 넷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믄 힐 長存(장존)ㅎ살 藥이라 받즘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入 보로매 아으 별해 ㅂ룬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入 보로매 아으 百種 排ㅎ야 두고,  
니믈 ㅎ 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入 보로몬 아으 ㉠嘉俳 나리마룬,  
니믈 ㅍ셔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ㅎ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ㅂ룻 다호라.  
것거 ㅂ리신 後에 디니실 ㅎ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月入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ㅎ스라운더 고우닐 스긱옴 녀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入 분디남ㅍ로 갓곤 아으 나을 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ㅍ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ㅍ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3) 시상 전개 양상

월별	요 지	월별	요 지
서사	덕과 복을 밝	7월	임과 살기를 기원
1월	생의 고독과 그리움	8월	임을 그리는 연모
2월	임을 등불에 비유한 송축	9월	임이 없는 쓸쓸함
3월	임을 꽃에 비유한 송축	10월	버림 받은 슬픔
4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11월	홀로 사는 슬픔
5월	임의 장수 기원	12월	연을 못 맺는 슬픔
6월	버린 입을 사모함		

(4) 변별력 문제

1. 이 노래의 장르적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평민 문학
- ② 후렴구의 발달
- ③ 3음보의 율격
- ④ 분절체(分節體)의 형식
- ⑤ 계세징인(戒世懲人)의 내용

2. 이 노래의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차원 높은 정신적 사랑과 유리된 감정표현이 뛰어나다.
- ② 허구적 상상력의 소산이며 민족적 삶의 반영이다.
- ③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절제된 감정 표현이 뛰어나다.
- ④ 사물에 비유하여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호소하고 있다.
- ⑤ 버림받은 운명은 대한 체념과 임을 향한 깊은 원한이 짙게 나타난다.

3. ㉠, ㉡의 민속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① 단오절 - 중추절
  - ② 단오절 - 유두절
  - ③ 중양절 - 백중절
  - ④ 단오절 - 중양절
  - ⑤ 유두절 - 중추절

4. 윗시에서 버림 받은 시적 자아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로 옳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 윗 시의 형식과 일맥 통하는 작품은?

- ① 일동 장유가
- ② 연행가
- ③ 농가 월령가
- ④ 계녀가
- ⑤ 원부사

정답	1. ⑤    2. ④    3. ①    4. ④    5. ③
----	--------------------------------------

**<번별력 문제 해설>**

1. ⑤는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다.

3. 수릿날 = 단오절 = 천중절 (음력 5월 5일), 가배 = 한가위

4. 「동동」에서 시적 자아를 비유한 말은 물론 ㉠, ㉡, ㉢이다. 그런데 그 성격을 좀 세분해 보면 ㉠와 ㉡는 ‘임으로부터 버림 받은 몸’이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고, ㉢는 ‘기구한 신세(운명)’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버림 받은 시적 자아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는 ㉠와 ㉡라고 할 수 있다. ㉠, ㉡, ㉢ → ‘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5. 「동동」과 「농가월령가」는 달거리 형식, 즉 월령체 시가이다.

(1) ‘동동’의 형식적 특징

- ① 월령체(月令體) : 일년 열두 달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각 연을 나누어 부르는 것으로, 내용상 각 절기의 세시 풍속과 관련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고전 시가에서 일반적인 것이나, 특히 달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세밀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동동’과 같은 월령체 노래의 특징이다. 조선 후기의 가사인 ‘농가 월령가(農家月令歌)’가 이 흐름을 잇고 있다.
- ② 분련체(分聯體) 형식 :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련체 형식과 후렴구의 사용은 고려 속요의 일반적인 형식적 특징이다. 특히, ‘동동’의 열두 개 연의 시상은 일정한 노래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가 드러난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민요가 궁중 연락으로 정착되면서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두 작품의 비교 분석

	동 동	농가월령가
율격	율격이 뚜렷하지 않음	4·4조의 가사체
정서	외로움, 슬픔, 애련	근면, 흥겨움
어조	하소연, 호소	교훈적, 계도적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농사 권면과 풍속 교화